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5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감에 따라 정부가 햇살론 탕크·카드 등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한다.

1일을 기해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며,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고금리 인하 대비 정책서민금융 확대=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화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에서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만, 대부업에서는 예외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 탕크, 햇살론 카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다변화한다.

햇살론 탕크는 은행권 상품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

## 보증자리론 '서민 우대' 도입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  
청년 우대 청약통장 2년 연장

1차 접종 50%때 6중 소비쿠폰

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한도 최대 200만원이다.

근로자 햇살론(2조4000억원→2조7000억원)과 햇살론 유스(2000억원→3000억원)의 공급은 더 늘린다.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늘어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금융·재정·조세**

행정안전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 주택 재산세 세율 0.05%p↓ (7월 9일 부러)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 출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7월 1일 시행)

금융위원회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24%→20% (7월 7일 시행)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7월 1일 시행)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도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은 60%로 10%포인트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이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금 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한다.

◇서민우대 보증자리론·청년 목돈 마련 지원=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 모기로 전환(대한 대출)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주택가격(시세)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이면 서 부부 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6만6000가구)의 요건을 갖추면 서민우대 보증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에도 나선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는 일정 비율로 자금을 보태주고, 기타 소득 구간별로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소득공제 혜택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목돈 마련(2년 만기 1200만원)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지원 인원을 2만명 늘린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허용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저소득 청년에게 20만원까지 월세가 무이자 대출된다.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은 대폭 낮춘다.

중전까지는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업 경험 요건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직장을 그만둔 지 2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사용액 10% 환급·6대 소비쿠폰 뿌린다=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 중 하나는 늘어난 카드 사용액 중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방식이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중단됐던 소비쿠폰도 재정비·확대한다. 신규 발행 물량은 1400만명 사용분에 달한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달했을 때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스포츠관람 쿠폰을 신규 가동하기로 했다.

1차 접종률이 70%까지 올라가면 숙박·관광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을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농촌 살리고 농산물 알리고 광주은행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30여 명은 지난 29일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토마토 농가를 찾아 열매 선별을 돕고 농산물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광주은행 제공>

## 농협은행, 전남 소상공인 보증지원 14억3400만원 출연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전남지역 소상공인 보증서 발급을 위한 지원 14억3400만원을 출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날 이창기 전남영업본부장은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전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14억3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출연금(7억2800만원)보다 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출연금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여신지원을

위한 보증서 발급 재원으로 사용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 신용보증재단 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전남 본부는 총 124억5500만원을 출연했다.

이창기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LH, 광주·전남 304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전남 총 304가구를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청약을 나간다.

지난 30일 LH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광주는 청년 112가구, 기숙사형 36가구, 신혼부부 I 52가구, 신혼부부 II 38가구 등 238가구를 모집하고, 전남은 신혼부부 I 66가구만 모집한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세의 40% 수준에 공급하며, 보증금은 60만원으로 저렴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 I'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II'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

80%로 공급하는 형태다.

신혼부부 II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 I은 최장 20년으로, 신혼부부 II는 최장 6년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두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집값 상승률, 작년 수준 넘어설 것"

### 건설산업연구원, 1.5% 상승 전망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셋값 역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매물 잠금 효과로 작년 상승 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은 지난 30일 열린 '2021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1.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1.6% 오르고, 지방은 1.3% 상승할 것으로 건설연은 예측했다. 연간 상승률로 보면 전국이 올해 5.5% 올라 지난해 상승률(5.4%)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6.5% 상승하고, 지

방은 4.4%로 작년(4.3%)보다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연은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공급 실효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고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수요 우위가 여전히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96.68 (+10.00)
↑ 코스닥	1029.96 (+7.44)
↓ 금리(국고채 3년)	1.448 (-0.011)
↓ 환율(USD)	1126.10 (-2.40)

# 자산 2,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총장로5가입구)